

##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 만주국의 조선인‘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 –

이동진\*

- 
- |                          |                      |
|--------------------------|----------------------|
| I. 서론                    | IV. 만주국의 조선인 ‘기녀’    |
| II. 만주국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두개의   | V. 만주국 성매매종사자의 민족간·민 |
| 통계                       | 족내 위계                |
| III. 만주국의 조선인 ‘예기·작부·여급’ | VI. 결론               |
- 

### I. 서론

‘신여성’은 일반적으로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신여성을 ‘새로 출현한 여성’이라는 의미로 확장하면 신여성에는 ‘새로운 직업여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매매종사자’도 신여성에 포함된다. ‘성매매’ 자체는 근대에 출현한 현상은 아니었지만, 성매매제도로서의 ‘공창제’는 근대적 현상이었음이 분명하다.<sup>1)</sup> 이러한 의미에서 성매매는 ‘연애’와 함께 ‘근대적 섹슈얼리티’를 구성하였다. ‘연애’는 ‘여학생’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성매매종사자 중에도 연애를 거쳐 동거나 결혼을 하거나,<sup>2)</sup> 벼림을 받거나, 심지어 ‘정사(情死)’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전근대 시기의 ‘기생’의 일부가 그러하였듯이 성매매와 연

---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전임강사, 정치사회학/역사사회학/법사회학 전공.

1) 이에 대해서는 배리 캐슬린 저, 정금나·김은적 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삼인 2002)를 참고하라

2) 하나의 예로서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 고찰: 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2000)를 참고하라

애가 중첩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섹슈얼리티로서의 성매매와 연애는 가장 이질적인 두 종류의 섹슈얼리티로서, 전자는 화폐(또는 권력)를 매체로 한 반면에 후자는 ‘낭만적 사랑’을 매체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대성 자체가 그리하듯이 성매매라는 근대적 섹슈얼리티는 또한 식민지적 섹슈얼리티로서 나타났다. 곧 그것은 ‘공창제’에서와 같이 ‘이식된 섹슈얼리티’였고, ‘일본군위안부’에서와 같이 ‘수탈된 섹슈얼리티’였다. 지금까지 근대적 또는 식민지적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로서 연애, 공창제, 일본군위안부, 기생, 여급, 카페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연구는 구술자료 채집과 현지 자료조사, 정부 문서 조사 등을 통해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자료를 보면 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강제연행’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공창제와 연결된 부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종사자 가운데 위안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작부’와 ‘창기’에 대한 연구는 ‘기생’과 ‘여급’에 대한 연구(이들 연구도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에 비해 부진하기는 하지만,<sup>4)</sup> 공창제와 함께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해외에서의 조선인 공창제와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글은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살펴보려고 한다. 당시 만주는 조선에서 강을 건너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더 육이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다. 이 때문에 만주는 일본내지와 함께 해외 조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만주에는 조선인 인구비율보다 더 많은 성매매종사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

3) ‘제도’로서의 공창제가 일본군위안부로 연결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尹明淑 「日中戰爭期における朝鮮人軍慰安婦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32호(1994);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韓國史論』, 제40호(1998)를 참조하라.

4) 이들은 당대에도, 현재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1927년 기생이 『장한(長恨)』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고, 1934년 여급이 『여성(女聲)』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지만 작부와 창기는 이러한 글쓰기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물론 기생과 여급도 ‘신여성’의 글쓰기에서는 배제된 위치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신여성’ 자신도 당대의 글쓰기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 많은 여성 잡지 기사의 취재대상이나 작가가 남성이었다.

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자료를 보면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로 가장 많이 끌려 간 곳도, 그리고 해외의 조선인 위안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도 만주였다. 이 글은 만주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의 실태를 주로 정부가 공표한 공식 통계와 당시 만주국에서 발행된 한글신문인 『만선일보(滿鮮日報)』의 기사에 나오는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나타내는 숫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만주국의 성매매제도가 어떠하였으며, 만주국의 성매매제도 속에서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의 위치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만주국은 다민족(공식적으로는 한족, 만주족, 몽고족, 조선족, 일본족의 '5족')국 가였으며, 조선인은 국적으로는 일본인이지만 일본내지인('日系')과는 구분되는 조선인 또는 반도인('鮮系')으로, 일본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지위가 여전히 '식민지인'이었지만, 중국인(공식적으로는 한족, 만주족, 몽고족을 포함하는 '만주인' 또는 '滿系')과의 관계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일본인의 지위를 누리기까지 하였다. 이에 당시 중국인은 조선인을 '이등국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제 소수민족인 조선인 이 '삼등국민'이 아니라 '이등국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sup>5)</sup>. 이 글에서는 만주국 성매매종사자 가운데서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의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조선인 지위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만주국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두개의 통계

만주국은 '위계적 다민족주의'라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성매매제도도 민족 별로 위계화, 분절화되어 있었다. 일본인은 대련조차지(관동주)와 남만주철도부속지에서 '사실상의' 공창제를 실시하였다. 이 공창제는 일본내지와 대만 조선과 같은 일본외지에서 실시하던 공창제와는 달리 '유곽'이 없고, 따라서 '창기'도 없었지만, 요리점 또는 음식점에 있는 '작부'가 사실상의 창기였다. 반면에 중국인의 성매매제도에는 전통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업소는 '기관(妓館, 또는 妓院, 妓樓)으로, 그리고 성매매종사자는 '기녀(妓女)'로 불렸다. 이러한 두 종류의 공창제

5) 하나의 예로 윤휘탁, 「만주국의 '이등국(공)민」」, 『역사학보』, 제169집(2001)을 참고하라.

가 있었지만 통계에서는 양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한데 섞여 놓았다. 이렇게 하여 만주국의 성매매업 통계는 일본인 성매매제도로 파악한 통계와 중국인 성매매제도로 파악한 통계의 두 종류가 있었다.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도 조선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기녀’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예기(기생), 여급, 작부(사실상의 창기 포함), 댁서 등으로 존재하였지만, 통계상으로는 또한 ‘기녀’로도 분류되었던 것이다 1940년 조선과 만주에서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sup>6)</sup>

<표 1> 1940년 조선과 만주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 분포

지역	예기	작부	창기	계	여급	댁서	합계
조선	6,023	1,400	2,157	9,580	2,145		11,725
만주	126	3,586		3,717	736	28	4,476

출전: 『조선총독부통계년보』 각년도,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 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論文集』, 32(1994), 58쪽, 滿洲國治安部警務司 『第四回警察統計年報(1942)』, 230~232쪽.

통계로는 조선에는 댁서가 없었고, 만주에는 창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선에는 댁서홀이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댁서가 없었지만, 만주에는 사실상의 유곽이 있었고 작부가 실제로는 창기를 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과 만주의 성매매제도(성매매종사자의 분류 체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조선과 만주의 정치적인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일본내지(오키나와를 포함)와 대만<sup>8)</sup> 조선에서는 동일한 공창제(유곽제)가 실시되었지만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로 차지하게 된

6) 1940년은 조선의 성매매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은 해였다 1942년에는 성매매종사자가 여급을 제외하면 7,942명이었고, 여급은 2,227명으로 1940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7) 전쟁 막바지에 조선인 위안부들이 있었던 오키나와의 성매매업을 보면 1939년 11월 那霸 경찰서 보안과 조사) 예기가 287명, 작부가 255명, 창기가 845명, 요정(원문은 藝妓置屋)이 200개, 요리점이 109개, 음식점이 439개, 유곽이 250개가 있었다. 여성부, 『2002년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여성부, 2002), 163쪽

8) 1940년에 타이베이시에서 대만인이 가장 밀집한 대도정(大稻另)에 위치한 25곳의 기관 가운데는 조선루, 신선루, 반도루 등 조선인을 고용한 기관이 적지 않았고, 여기서 생활하는 전체 220명의 창기 가운데서 42명이 조선 여성이었다. 又吉盛清, 『日本植民地下的臺灣與沖繩』(臺北: 前衛出版社, 1997), 72쪽, 김영신, 「일제하 한인의 대만이주」, 『국사관논총』, 제99호(2002), 204쪽에서 재인용.

관동주와 남만주철도부속지에서는 동일한 공창제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상황이 만주국 수립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의 성매매제도인 '유곽을 시설로 하는 공창제'는 1872년에 <창기해방령>을 공포하여 막부시대부터 내려오던 공창제를 폐지한 이듬해인 1873년에 도쿄부령 제145호로 <유곽(원문은 貸坐敷)도세(渡世)규칙>과 <창기도세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성립되었다.<sup>9)</sup> 이 제도가 일본인의 해외 거류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 조선이었다. 조선에서는 1881년에 부산과 원산에서 일본영사관령으로 <유곽영업규칙>, <예기·창기(원문은 藝娼妓)취체규칙>, <성병병원규칙>, <성병검사규칙> 등을 공포하여 유곽·창기의 영업을 허가하였다.<sup>10)</sup> 그런데 1883년에 개항한 인천의 경우는 부산, 원산과는 달리 일본과 청의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 외에 외국인 공동조계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므로 만약 일본의 성매매제도를 실시하면 국가 체면이 손상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외무성은 인천영사가 부산, 원산, 블라디보스톡의 경우와 같이 유곽 영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 인천에서의 유곽 영업을 허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산과 원산의 유곽 영업도 1년을 기한으로 폐업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1)</sup>

그렇다고 조선의 일본거류지에서의 일본의 유곽 영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887년 부산영사가 유곽영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영업권 계승에 대해 문의하자, 외무성은 재신청자나 신규신청자에게는 유곽영업을 허가할 수 없어도 종전부터 영업하는 자와 그의 처자식은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려,<sup>12)</sup> 인천, 서울과는 달리 부산·원산에서는 기존의 유곽영업자에 한하여 영업을 허가해 주었다. 그리고 인천영사관도 1892년에는 <예기영업취체규칙>을 발표하여 예기를 공인하였다.<sup>13)</sup> 이렇게 하여 조선의 일본인거류지에서는 유곽을 요리

9) 竹村民郎, 『廢娼運動』(1982), 2~3쪽, 송연옥, 앞의 논문, 218쪽에서 재인용. 유곽영업을 대죄부업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성구매자에게 방(座敷)만 빌려주는 업체인 것처럼 꾸며낸 조어였다

10) 부산의 <유곽영업규칙>, <예창기영업규칙> 등은 위의 논문, 220~222쪽을 참조하라. 조선에서만 유독 유곽·창기 영업을 허가한 데 대해서 일본외무성문서에서는 "당시 어쩔 수 없어서 일단 공허하였다"라고 하였다. 日本外務省, 「明治十六年十月十六日起草·貸座敷營業及娼妓營業廢止方▶件省議」, 『韓國警察史』 제1권, 387~388쪽, 같은 논문, 223쪽에서 재인용.

11) 위의 논문, 223~224쪽.

12) 위의 논문, 226쪽.

13) 위의 논문, 226~227쪽.

점이라고 하고, 창기를 예기 또는 작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공창제와 다름이 없으면서도 곁으로는 공창제가 아닌 형식을 취하였다.<sup>14)</sup> 부산에서는 사실상 유곽인 ‘특별요리점(또는 읊종요리점)’이 성행하였는데, 이를 본받아서 1902년 인천 이정동(已井洞)에 17 개 요리점이 공동 사업으로 특별요리점 부도루(敷島樓)를 개설하였다.<sup>15)</sup> 여기에 있는 예기(음종예기)는 창기와 다름이 없었다.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한제국정부가 1908년 9월 경시청령 제6호와 제6호로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각각 발표하여, 성매매종사자를 ‘기생’과 ‘창기’로 분류하였다.<sup>16)</sup> 이 법규는 1900년에 일본에서 공포된 <창기취체규칙>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서,<sup>17)</sup> 부속문서에 의하면 기생은 관기(官妓)를 포함하는 기생 전체를 지칭하고 창기는 상화실(賞花室), 갈보, 색주가의 작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18)</sup> 따라서 위 법규상의 창기에는 작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곽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식 공창제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법규로 드러난 것은 1916년 3월 경무총감령 제3호와 제4호로 <예기작부권법> 원문은 藝妓置屋)영업취체규칙>과 <유곽창기취체규칙>의 공포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서 성매매업은 여관(제1호), 요리점·음식점(제2호), 소개업(제5호) 등과 함께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는 ‘보안영업’에 속하게 되었다.

대련조차지에서도 처음에는 일본의 공창제가 실시되었다. 현지의 군 당국은 1905년 12월에 대련 봉판장(逢阪町)에 유곽을 설치하여 군의 관리 하에 기류의 설치를 허가하였다. 이는 일본군(遼東守備軍)이 명사가 사장(私娼)과의 유흥에 대한 방지책으로 창기의 등록과 성병검사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9)</sup> 봉판장 유곽

14) 위의 논문, 231~232쪽.

15) 仁川府, 『仁川府史』(1933), 1472쪽, 위의 논문, 238쪽에서 재인용

16) 조선인 성매매종사자가 공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본 공창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891년에 인천에서 일본인 거류민이나 병사들을 상대로 하는 조선인 성매매업이 존재하였고(村上唯吉, 「朝鮮通信」, 『女學雜誌』, 286(1891), 10쪽, 위의 논문, 234~236쪽), 1895년에 부산에서 일본인 업자가 서울에서 조선인을 모집하여 성매매업 개업을 신청하였다(本川源之助, 「朝鮮釜山通信」, 『女學雜誌』, 412(1895), 7쪽, 같은 논문, 236쪽에서 재인용).

17) 일본의 공창제에 대해서는 Garon, Sheldon, “The World’s Old Debate? Prostitution and the State in Imperial Japan, 1900~1945,” *American Historical Review*, 98-3(June), 1993을 참고하라

18) 송연우, 앞의 논문, 259~261쪽.

19) 竹村民郎, 「公娼制度の定着と婦人救濟運動」, 『環』, 第10號(2002), 328쪽.

은 “15개의 기루 외에 음식점, 잡화점이 3~4개가 있고, 사무소를 중앙에 두고, 122 내지 126명의 예기와 167명의 창기를 수용하여 영업하고 있었다.”<sup>20)</sup> 1907년에 대련의 요리점이 160개를 넘었다. 그 가운데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천승관(千勝館)에는 예기가 31명, 여자종업원(원문은 仲屬)이 11명이 있었다.<sup>21)</sup> 1907년 5월 대련에는 예기가 167명, 작부가 283명, 창기가 113명, 중국인 창기가 76명이 있었다.<sup>22)</sup>

그러나 일본영사관 관할 지역인 개방지(商埠地)에서는 일본의 공창제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하나의 예를 보면 1907년 하반기에 남만주철도부속지를 제외한 개방지를 관할하던 봉천일본인거류민회가 최초로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예기와 작부에게 부과금을 징수하였다. 이들에 대한 부과금은 3,600엔 매월 예기와 작부에게 각각 3엔과 2엔씩 징수하고 작부 수 300명으로 추정한 액수였다. 으로 체류자 일반 부과금 2,400엔보다 더 많았다. 거류민회에서는 예기와 작부에게 허가증(鑑札)을 주면서 부과금을 징수했다.<sup>23)</sup>

대련에서도 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와 같은 성매매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 연구자는 1909년 이후에 만주에서 일본인이 유곽을 요리점이라고 하고, 창기를 예기 또는 작부라고 부르는 러일전쟁 이전의 인천에서와 같은 성매매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다.<sup>24)</sup> 위 연구자는 그 근거를 밝혀놓지 않았고, 또 만주에 대련도 포함되는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공창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1905년과 1906년에 공포한 일련의 관련 법규 가운데서<sup>25)</sup> 유곽과 창기에 관한 법규만 이후에 개정되지 않은

20) 15개 기루 가운데서 13개는 ‘루’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松の家’, ‘金剛’으로 요리점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滿洲日日新聞》, 1907년 12월 27일자, 위의 글 328~329쪽에서 재인용

21) 《滿洲日日新聞》 1908년 1월 29일자, 위의 글 330쪽에서 재인용

22) 《福岡日日新聞》 1907년 12월 18일자, 위의 글 331쪽에서 재인용

23) 野田涼 編, 『奉天居留民會三十年史』(奉天居留民會, 1936), 17~18쪽

24) 송연옥, 앞의 논문, 232쪽, 倉橋正直, 「滿洲の酌婦は内地の娼妓」, 『愛知縣立大學文學部論集一般教育編』, 第38號(1999);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 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32號(1994), 38쪽에서 재인용.

25) 이들 법령은 <예기·작부·여성고용자(雇婦女)취체규칙>(1905년 관동주민정서(이하 민정서)령 제2호, 1912년 관동도독부(이하 부)령 제4호, 1916년 부령 제2호), <요리점·음식점·요정(貸席·貸合)영업취체규칙>(1905년 민정서령 제4호, 1912년 부령 제4호), <유곽취체규칙>(1905년 민정서령 제12호), <창기취체규칙>(1905년 민정서령 제11호), <창기건강진단시행규칙>(1906년 민정서령 제2호) 등이다. 福昌公司調查部 編, 『滿蒙通覽(中編)』(東京 大阪至號書店, 1918), 615~617쪽

것으로 보아(아마도 철폐되었을 것이다) 대련에서도 유곽과 창기가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만주에서는 조선과는 달리 유곽과 창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였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대련에서의 성매매업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1906년 대련에는 ‘금발야차(金髮野叉)’로 불리던 러시아인 성매매종사자가 점차 하얼빈, 봉천, 지부(현재의 연태), 북경 등지로 옮겨가고 남은 업소가 4개 밖에 없었다. 대련에서 외국인 유곽지인 소강자(小崗子)에는 중국인 유곽(중국인은 妓樓라고 불렸을 것이다)도 40개가 있었고 거기에 중국인 성매매종사자가 70여명이 있었다.<sup>26)</sup>

그러나 일본인의 성매매업은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의 성매매업과는 달랐다. 대련에서는 “공창제가 공인되어 성매매종사자와 도박꾼이 가슴을 펴고 배회하고, 사생아와 사산이 증가하고, 사생아는 중국인에게 팔려갔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은 일본인을 술, 여자, 도박에 빠져 있다고 경멸했으며, 이것이 배일사상을 양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까지 되었다. 그리고 대련에서는 성매매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인구제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sup>27)</sup> 이러한 정황을 보면 대련의 경우에도 인천의 예에서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체면과 공창제 폐지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원래의 공창제가 폐지(실제로는 수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성매매종사자의 경우에도 그 비참함이 일본인 성매매종사자에 못지 않았다.<sup>28)</sup> 그런데 중국의 성매매종사자는 예기, 작부, 창기의 구분 없이 모두 ‘기녀(妓女)’로 불리는 대신에 등급으로 나뉘었다. 기녀의 등급은 기녀가 속하는 기원의 등급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00년에 북경경찰청(京師警察廳)이 내성에 있던 기원을 성외로 옮기고 허가증을 발급하고 부과금을 징수하여 공개적인 영업을 허가하였는데, 당시 허가한 373개 기원 가운데 1등 기원(小班, 원명은 堂 또는 大地方)이 78개, 2등 기원(茶室, 中地方)이 100개, 3등 기원(下處)이 172개, 4등 기원(小地方)이 23개였다.

26) 그 가운데 한 업소의 5명 중국인은 일본인만 상대했는데 그녀들은 모두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滿洲日日新聞》, 1907년 11월 12일자, 竹村民郎, 앞의 논문, 333쪽에서 재인용.

27) 이 운동의 참가자들이 주축이 되어 1911년에 일본에서 공창제폐지운동단체인 ‘파청회(廢清會)’를 결성하였다. 竹村民郎, 앞의 논문, 333~336쪽.

28) 이에 대해서는 文芳 主編, 『娼禍』(中國文史出版社, 2004)를 참조하라.

성매매업이 가장 성행하였던 상해의 예를 보면 모두 17개 등급의 기원이 있었다.<sup>29)</sup> 상해의 공공조계당국(工部局)이 1918년에 결성된 도덕촉진위원회(후의 도덕촉진회)의 압력을 받아 1920년 '음풍조사회'라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공조계에는 1등 기녀가 2,135명, 2등 기녀가 400명, 3등 및 사창이 4,500명, 광동(廣東)기녀가 200명으로 모두 7,235명이 있었다. 이 숫자에는 외국기녀, '태기(台妓, 여성을 소개해주는 장소)', 기타 반공개적인 기녀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sup>30)</sup>

이러한 중국의 성매매제도인 기원은 오키나와의 유곽인 쓰지와 유사하였다.<sup>31)</sup> 쓰지는 1672년에 당시 설정에 의해 부근 사창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으로 권번·유곽·요리점이 일체화된 형태였다. 이러한 오키나와의 성매매제도도 <창기취체규칙>(1900), <유과영업취체규칙>(1910)이 적용되어 일본의 성매매제도로 편입되게 되었다.<sup>32)</sup> 말하자면 일본의 성매매제도는 기원이 권번(예기), 유곽(창기), 요리점(예기와 작부), 음식점(작부) 등—나중에는 카페(여급)—으로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매매폐지운동이 전개되자 가장 노골적인 성매매업소(종사자)인 유곽(창기)이 표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성매매제도 가운데서 만주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는 일본의 성매매제도에 속하였다. 하나의 국가에 2개의 성매매제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2개의 성매매 통계가 있었던 것이 만주국의 이중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하면서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은 모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통계에서 동일한 존재인양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과 일본인 예기(조선인의 경우에는 기생)와 작부(사실상의 창기를 포함)가 '기녀'로 재분류되었으며 중국인 기녀가 '예기와 작부'로 재분류되었다. 여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혼동이 없었지만

29) 平襟亞, 「舊上海搖大的娼妓聚落」, 위의 책, 14~22쪽; Hershatter, Gail, *Dangerous Pleasure: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Century Shanghai*, Berl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賀蕭, 『危險的愉悦 20世紀上海的娼妓問題與現代性』, 江蘇人民出版社, 2003, 41~56쪽.

30) 謝吾義, 「民初上海娼妓一瞥」, 文芳, 앞의 책, 30~31쪽.

31) 이는 조선의 기생과도 유사하였다. 조선의 기생은 1째, 2째, 3째로 구분하였는데, 1째 기생은 궁중연회에 참석하는 기생이고, 2째 기생은 고관대작이나 선비들을 벗하여 노는 기생이고, 3째 기생은 매음에 종사하는 기생이었다. 중국의 1등 또는 2등 기원에 해당하는 것이 조선의 '기생방'이었다. 尹白南, 「妓生·女妓生」, 『三千里』, 10월호(1935), 198~201쪽.

32) 여성부, 앞의 책, 163쪽.

중국인의 경우에는 여급이 거의 없었다. 이는 기녀가 여급과 같은 기능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인 기녀의 경우에는 사창도 최하급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일본의 공창제에서는 사창은 경찰 통계에서도 배제되었다.

### III. 만주국의 조선인‘예기·작부·여급’

만주에 있는 일본의 경찰은 ‘보안관계영업조사’에서 성매매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만주국 정부가 치외법권 철폐 직전인 1936년 1월에 요리점 등 17 개 종목의 영업을 종괄하는 <영업취체규칙>을 공포하여 만주국에서도 ‘보안영업’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sup>33)</sup> 이에 만주국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일본의 성매매제도에 의해서 분류하는 통계가 나타났다. 먼저 1930년대 전반 만주국 수도인 신경(만주국 수립 전은 長春) 남만주철도(이하 만철)부속지의 성매매업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2> 신경만철부속지의 성매매업 상황

영업별	요리점	카페	다방	요정	예기	작부	여급	여자 고용인	댄서	중국인 예기·창기
만주사변전	58	11	82	1	112	87	28	45		688
1932	73	17	149	1	325	139	129	170	27	808
1933	90	39	248	5	467	219	340	370	54	971
1934	91	50	285	8	505	234	407	545	53	1065

출전: 滿洲事情案內所, 「觀於數字新京」, 『滿洲統計』(滿洲統計協會, 1936), 22쪽

주: 이외에 오락방면이 58~91개, 극장이 3개가 있었다.

신경만철부속지에서는 만주사변 후에 그리고 만주국 수립으로 신경이 수도가 된 후에, 성매매업이 급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카페와 다방이 새로운 성매매업 소로 등장하였다.<sup>34)</sup> 그리고 만주에는 조선에는 불허하던 댄서홀이 허용되고 있었

33) 이 때 보안영업에 고물상을 추가했다. 滿洲國史編纂刊行會 『滿洲國史·總論』(謙光社, 1973), 490쪽.

34) 카페가 일본 각지에서 유행하게 된 것은 1927~1929년경이었고, 조선에서 최초로 카페가 신문에 보도된 것은 1931년 9월이었다. 戶川猪佐武, 『素顔の昭和 戰前編』(角川文庫 緑481, 1981), 67~76

다.<sup>35)</sup> 위 통계에서 중국인은 사실은 '기녀'를 일본인 성매매제도로 표현하여 '예기·창기'로 나타낸 것이었다. 위 통계에서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요리점 가운데서는 조선인 요리점이 있었으며,<sup>36)</sup> 따라서 조선인 작부와 여자종업원(원문은 仲居)도 있었다.

같은 시기 만주국 최대의 도시인 봉천(奉天, 만철부속지를 포함)에서의 일본인 (조선인 포함) 성매매업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sup>37)</sup>

<표 3> 1930년대 전반 봉천시의 일본인 성매매업 상황

	요리점	음식점·카페	조선인 요리점	댄서홀	예기	작부	조선인 작부	댄서	종업원·여급
1931. 8	38	97	18		240	80	132		329
1932. 9	45	166	20	4	308	115	164	120	568
1934. 3	66	317	25	6	446	178	273	205	864

출전: 菊池秋四郎, 『哈爾濱と奉天(奉天の部)』(滿洲視察東道社, 1934), 148쪽

주 1: 종업원·여급에는 조선인종업원 30명을 포함한다.

주 2: 이외에 유희장이 46개가 있었다.

쪽, 『동아일보』 1931년 9월 24일자, 2면, 孫禎臨, 「日帝下의 賣春業 公娼과 私娼」, 『都市行政研究』, 3(1988), 311쪽에서 재인용 카페를 성매매업소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예를 보면 여급이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기사 제목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영업부진 애로서비스 여급」, 『매일신보』 1934년 11월 8일자 7면, 「기생·여급 이동 영업 금후 취체」, 『매일신보』 1937년 6월 2일자 2면

35) 조선에서 댄서홀 불허는 『매일신보』 1937년 5월 18일자, 2면을 참조하라. 이에 대해서 레코드 회사문예부장, 다방 마담, 서울의 3개 권번의 기생 영화와 연극의 여우 등의 연명으로 경무국장에 댄서홀을 허가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三千里』, 1월호(1937), 162~166쪽. 이들은 일본내지의 도시들, 중국의 상해, 남경, 북경 그리고 가까이 민주의 대령 봉천 신경에 댄서홀이 있지만 유독 조선(서울)에 댄서홀이 없는 것, 그리고 카페와 공창을 허가하면서 댄서홀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며, 요리집과 비교하면 댄서홀이 더 성매매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36) 이 종류의 요리점은 조선에도 1910년대-1920년대에 변창했다. "요리점은 조합에 소속된 기생들이 전통 기예와 가무를 공연하면서 아울러 술과 음식을 파는 상업적 공간이었다. 이는 통시적으로 조선 시대 예술 및 사교, 유흥의 장이었던 풍류방이나 기방을 계승하지만 일본의 권번 시스템에 의해 새롭게 재편된 근대적 공간이다.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여급연구: 여급잡지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3(2003), 32쪽

37) 봉천경찰서(만철부속지)와 봉천총영사관(봉천사)의 조사를 합한 것이다

만주사변 전에 개방지에 몇 개 있던 댄서홀이 관동청의 허기를 받아 다시 개업하였다.<sup>38)</sup> 조선인이 경영하는 댄서홀과 조선인 댄서는 없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이 경영하는 카페와 조선인 여급도 없었다. 1934년 8월말 봉천만철부속지의 유흥요리점 가운데 조선인 경영이 2개, 일본인 경영이 46개, 중국인 경영이 11개가 있었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카페가 71개가 있었다.<sup>39)</sup>

그러나 1940년이 되면 조선인은 권번(예기)을 제외한 모든 성매매업에 진출하였다. 1941년 말 현재 봉천시의 민족별 성매매업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4> 1941년 말 봉천시 민족별 성매매업 상황

	요리점	권번	음식점	카페	예기	작부	여급	인구
중국인	295 (76.2)		738 (66.4)	9 (13.4)	22 (4.0)	2,235 (75.4)	29 (3.3)	1,246,019 (82.7)
일본인	62 (16.0)	52 (100)	338 (30.4)	48 (71.6)	529 (96.0)	233 (7.9)	663 (74.7)	202,937 (13.5)
조선인	29 (7.5)		37 (3.3)	11 (16.4)		461 (15.6)	195 (22.0)	56,767 (3.8)
기타	1					17		1,323
합계	387	52	1,111	67	551	2,963	887	1,506,852

출전: 奉天市公署·奉天市商工公會, 『奉天市統計年報(1941~1942年版)』(1943), 20쪽, 奉天商工公會, 『奉天産業經濟事情』(1942), 2~3쪽

주: 팔호 안은 비율이다

중국인은 모든 종류의 성매매업소와 성매매종사자의 비율이 인구비율에 미치지 못한 반면에, 일본인과 조선인, 특히 일본인의 경우에는 모든 성매매업소에서 그리고 작부를 제외한 모든 성매매종사자에서 인구비율을 상회하였다. 조선인도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성매매업소와 예기를 제외한 모든 성매매종사자에서 인구비율을 상회하였다. 일본인의 경우에 작부의 수가 적은 것, 그리고 조선인의 경우에 예기의 수가 없었던 것은 일본인은 성매매종사자 직종 가운데서 상위 직종을, 조선

38) 브로드웨이(동낭속통), 명성홀(가무정), 올림파(팔경로), 봉천회관(동낭속통 상부지입구), 바빌론(삼경로), 레크미널(삼경로) 등이 있었다.

39) 菊池秋四郎, 앞의 책, 36쪽

인은 하위 직종을 차지하였음을 나타낸다. 다만 인구대비 여급의 비율에서 왜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약간 더 높았는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조선인과 중국인 성매매종사자를 비교하면 조선인이 여급의 비율이 높고, 중국인이 작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곧 조선인 성매매종사자가 상위 직종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성매매업과 일본인 성매매업의 비율을 1930년대 전반과 비교하면 모든 분야에서 조선인 성매매업이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작부, 카페, 여급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여급을 제외한 성매매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중국인 성매매종사자(기녀)가 64.2%, 일본인 성매매종사자(예기·작부)가 21.7%,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작부)가 13.1%로 나타나서, 인구대비로 보면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대도시에서의 성매매종사자의 민족별,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국적으로는 어떠하였을까? 1940년 말 '보안관계영업조사'에 의한 만주국의 성(특별시)별 민족별 성매매에 관한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5> 1940년 말 만주국 성(특별시)별 민족별 성매매업 상황

		요리점		요정		카페		예기		작부		여급		댄서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중국인	4470	78.2	3	2.2	96	11.1	662	11.9	19059	75.5	331	4.4	3	0.9
	일본인	749	13.1	132	97.8	641	74.3	4778	85.8	2264	9.0	6336	84.9	271	83.9
	조선인	488	8.5			111	12.9	126	2.3	3586	14.2	736	9.9	28	0.3
	합계	5718	100	135	100	863	100	5566	100	25259	100	7459	100	323	100
신경특별시	중국인	140	80.0					37	6.0	1135	64.0				
	일본인	27	15.4	29	100	50	89.3	584	94.0	375	21.2	753	90.5	78	88.6
	조선인	8	4.6			6	10.7			263	14.8	79	9.5	10	11.4
	합계	175	100	29	100	56	100	621	100	1773	100	832	100	88	100
봉천	중국인	1229	83.6	3	3.6	27	14.8	379	21.1	6009	85.2	58	3.4		
	일본인	174	11.8	81	96.4	130	71.4	1413	78.9	334	4.7	1524	90.5	117	97.5
	조선인	67	4.6			25	13.7			704	10.0	102	6.1	3	2.5
	합계	1470	100	84	100	182	100	1792	100	7054	100	1684	100	120	100
길림	중국인	339				1		36		1337		2			
	일본인	44				21		222		147		182		12	
	조선인	47				8				312		48		12	

용강	중국인	369					9		1354				
	일본인	26					181		61		381		
	조선인	14			28				101		3		
열하	중국인	47			6				213		5		
	일본인	16	1		14		94		43		120		
	조선인	1							11				
빈강	중국인	373	79.0		49	40.8	92	17.2	1855	72.8	232	23.8	3 2.9
	일본인	66	14.0	18	100	57	47.5	440	82.2	273	10.7	672	69.0 64 62.1
	조선인	23	4.9			4	3.3	3	0.6	310	12.2	44	4.5 15 14.6
	합계	472	100	18	100	120	100	535	100	2547	100	974	100 103 100
금주	중국인	130					6		700				
	일본인	25			23		160		30		172		
	조선인	20							110				
안동	중국인	250							499				
	일본인	27			13		151		36		140		
	조선인	22			3		31		45		29		
간도	중국인	60	34.3		3	5.3			399	34.6			
	일본인	45	25.7		25	43.9	134	99.3	141	12.2	184	53.3	
	조선인	70	40.0		29	50.9	1	0.7	614	53.2	161	46.7	
	합계	175	100		57	100	135	100	1154	100	345	100	
삼강	중국인	227			3				971		6		
	일본인	51			46		253		115		337		
	조선인	43			7		9		234		41		
통화	중국인	106							253				
	일본인	26			13		134		42		140		
	조선인	26			7		20		103		54		
목단강	중국인	203	57.3		2	1.7	3	0.6	796	52.7	22	2.3	
	일본인	90	25.4	3	100	95	81.2	419	87.3	287	19.0	759	79.4
	조선인	61	17.2			18	15.4	58	12.1	428	28.3	169	17.7
	합계	354	100	3	100	117	100	480	100	1511	100	956	100
동안	중국인	93							250				
	일본인	47			51		155		148		399		
	조선인	29			3						6		
북안	중국인	395					10		1440				
	일본인	27			20		102		114		165		
	조선인	25					4		140				
흑하	중국인	160							778				

	일본인	22			18		129		62		160		
	조선인	16							120				
	중국인	64							180				
홍안동	일본인	5			3		40		8		18		
	조선인	3							9				
	중국인	59							254				
홍안남	일본인	4			6		22		9		55		
	조선인	2							10				
	중국인	16					90						
홍안서	일본인	3			3		12		2				
	조선인				1				2				
	중국인	110			4				627		6		
홍안북	일본인	24			25		133		38		174		
	조선인	11							68				

출전: 滿洲國治安部警務司, 『第四回警察統計年報』, 1942, 230~232쪽

주 1: 원문은 중국인은 만한계(滿漢系), 일본인은 일계, 조선인은 선계이다

주 2: 이외에 무도교사로 일본인 8명, 조선인 1명, 기타 1명이 있었다<sup>40)</sup>

전국적으로 일본인 성매매업이 요리점과 작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요리점과 작부의 비율도 인구비율보다는 높았다. 조선인은 요리점, 카페, 작부, 여급의 비율이 인구비율을 상회하였다.

각 분야별로 조선인 성매매업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① 조선인요리점은 홍안서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다. 대체로 인구 비율에 따라 분포되어, 간도성, 봉천성, 목단강성, 길림성의 순서로 많았다( 민족별 비율로는 간도성, 목단강성, 통화성, 삼강성, 금주성, 길림성의 순서로 높았다). 변방인 삼강성에도 조선인요리점이 43개나 있었다. 조선인 예기는 목단강성 안동성 통화성, 삼강성, 빈강성, 간도성에 있었다. 목단강성에 가장 많았던 것은 목단강시에 조선인권번이 있었기 때문이다.<sup>41)</sup>

40) 무도장은 중국인 1명, 일본인 10명, 기타 1명, 홍행장은 중국인 139명, 일본인 71명, 조선인 5명, 기타 5명, 유기장은 중국인 182명, 일본인 321명, 조선인 48명, 기타 7명이다

41) 목단강조선인권번에는 45명의 기생이 있었다(《만선일보》 1940년 3월 27일자 3면). 이들은 기자구락부의 후원으로 1940년 8월 9일과 10일 이틀간 가설극장에서 창립기념공연을 했다(《만선일보》 1940년 8월 9일자, 5면).

② 조선인 작부는 동안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다. 조선인 작부는 봉천성, 간도성, 목단강성, 길림성, 빈강성, 신경특별시, 삼강성의 순서로 많았다(민족별 비율로는 간도성, 목단강성, 통화성, 삼강성, 길림성, 신경특별시의 순서로 높았다).

③ 조선인 카페는 간도성, 용강성, 봉천성, 목단강성, 길림성, 삼강성, 통화성, 신경특별시, 빈강성, 안동성의 순서로 많았고, 조선인 여급은 목단강성, 간도성, 봉천성, 신경특별시, 통화성, 빈강성, 삼강성의 순서로 많았다(비율로는 간도, 길림, 목단강, 신경, 봉천, 빈강의 순서였다). 용강성의 경우 카페가 28 개이고, 여급이 3 명인데 이는 오기가 아니라면 조선인 여급이 일본인 카페에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인 카페가 없고 여급이 381명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오기로 보인다. 동안성은 조선인 카페가 없고 여급만 6명이 있고, 흥안서성은 조선인 카페만 1개 있고 여급은 없다. 오기가 아니라면 동안성의 조선인 여급은 일본인 카페에 고용되고, 흥안서성의 조선인 카페는 일본인 또는 중국인 여급을 고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 여급이 일본인 카페에 고용되는 경우는 가능하였지만 조선인 카페에 일본인 또는 중국인 여급을 고용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④ 조선인 댄서는 빈강(하얼빈), 길림, 신경, 봉천의 순서로 많았다. 조선인 댄서의 합계(28명)와 실제 합계(40명)가 다르다. 합계가 오기이거나, 길림성의 조선인 댄서 12명이 오기로 보인다.

조선인 성매매업을 보면 열하성, 금주성, 북안성(예기 4명), 흑하성 흥안동성 흥안남성, 흥안서성, 흥안북성에는 요리점과 작부만 있었다(북안성은 예기 4명이 더 있었고, 흥안서성에는 카페 1개가 더 있었다). 일본인은 모든 지역에 요리점 예기 작부, 카페(용강성에 카페가 없는 것을 오기라고 하면, 여급 흥안서성에 여급이 없는 것을 오기라고 하면)이 있었다.

요리점과 카페의 소재지는 시, 현성, 또는 기차역이 있는 가(街) 소재지 등이었다. 1938년 말 현재 조선인의 도회지에서의 인구비율이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3.0%, 3만~10만 명의 중소도시에서 2.9%, 1만~3만 명의 대시가에서 5.1%, 5,000~1만 명의 중시가에서 5.0%, 5,000명 이하의 소시가에서 3.7%에 지나지 않지만,<sup>42)</sup> 성매매업의 비율이 모두 도회지 인구비율을 상회한 것은 조선인 성매매업

42) 宮川善造, 『人口統計に見たる滿洲國の緣族複合状態』(滿洲事情案内所, 1941), 133쪽

이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후술). 반면에 일본인은 대도시에 71.7%, 중소도시에 13.9%가 집중되어 있었고, 소시가에도 행정 상층에 반드시 일본인이 있어서, 성매매업이 영업을 하는 도회지에는 일본인 성 구매자가 널려 있었다.

일본인의 성매매업의 비율은 성매매업 내에서의 직종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은 일본인 성매매업이 상대하는 고객인 일본인이 만주국에서 '일등국민'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 성매매업도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고객을 맞았지만 그들은 대체로 하층 일본인이었고, 중국인 성매매업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조선인 고객을 맞았지만,<sup>43)</sup> 이들 일본인은 대체로 조선인 성매매업의 고객보다도 더 하층이었고, 조선인도 대체로 조선인 성매매업의 고객보다는 하층이었다. 이와 같이 성매매업의 민족별 위계는 바로 만주국에서의 민족별 위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 IV. 만주국의 조선인 '기녀'

다음으로 '기녀'로 파악되는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의 통계를 살펴보자 1934년 8월말 봉천의 기루 소재지를 보면 조선인기루는 서탑대가(西塔大街)와 십간방 十間房, 신환락가 포합에 있었고<sup>44)</sup> 일본인기루는 서탑대가와 맞닿아 있는 일길정(日吉町)과 유정(柳町)에 있었으며, 중국인유관은 등랑정(藤浪町), 청엽정(青葉町)의 집창가(平康里,<sup>45)</sup> 남시장, 북시장, 공업구 등에 분산되어 있었다.<sup>46)</sup> 그리고 기루의 명칭을 보면, 조선인 기루는 '루'와 '관'을 사용하며, '김천관(金泉館)', '동해루

43) 흑룡강성 호림진(虎林鎮)의 '홍보당(紅寶堂)'이라는 기원의 예를 보면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을 모두 받았다. 姜紅喜, 「往事不堪回首」, 文芳 主編, 앞의 책, 473쪽.

44) 이들은 조선인 밀집 지역이었다. 십간방은 서탑대가와 동가무정(東加茂町)의 북단이 만나는 동쪽 일대였다. 신환락가는 십간방 남쪽 일대로서 1933년에 시가지를 조성하여 댄서홀, 카페, 요리점 등이 들어서서 십간방과 호응하는 환락가를 이루었다. 菊池秋四郎, 앞의 책, 132쪽.

45) 평강리라는 명칭은 그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집창가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보인다. 신경의 평강리는 바, 카페, 다방 밀집지대인 길야정(吉野町) 부근에 있었다.

46) 菊池秋四郎, 앞의 책, 153쪽.

(東海樓)와 같이 기루와 요리점에 모두 포함된 예도 있었다.<sup>47)</sup> 반면에 중국인 집 창가에 있는 중국인기루는 모두 ‘서관(書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sup>48)</sup>

이러한 민족별 기루 명칭의 차이는 하얼빈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하얼빈의 민족별 기관(妓館)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6> 하얼빈 민족별 기루의 수(1933년 6월 현재)

	기루명	예기 수	작부 수	소재지
일본요리점	무장야	22		도리지단가
	사창	14		도리투롱가(道裡透籠街)
	대길	14		도리전지가
	합계	50		
일본기루	영락	27		
	수루	17	14	
	신복루	26		
	칠복	20	3	
	대흑	11		
	조이루	35	10	도리일면가
	옥옥	17	15	
	춘일루	14		
	부가천	12	6	
	취월	11		
	본진루	13	10	
	합계	213	58	
	방선각		8	
	부용루		12	
	방월루		11	
조선기관	합이빈관		10	도리일면가
	동양관		8	
	운산루		11	
	평안관		9	
	빈강관		10	
	복덕루		11	도리매매가
	태평관		11	
	대성관		6	도외삼도가
	송강관		5	도외창평가
	합계		120	

47) 조선인요리점을 보면 서탑대가(7개), 십간방(10개), 대서관(1개) 소재의 요리점 18 개 가운데서 2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9개)과 루(7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위의 책, 164쪽).

48) 일본인들도 여기에 자주 출입하였다고 한다(위의 책, 154쪽).

平康里	덕봉하처	20	도외16도가신세계남로
	군선서관	20	
	영준원	20	
	구순하처	20	
	영승서관	20	
	쌍옥반	15	
	사회반	10	
	연향반	10	
	시천반	15	
	도원서관	10	도외16도가평강리
	천보당	20	
	계보당	20	
	옥복당	10	
	복락당	10	
	옥봉당	10	
	금락당	10	
	여락당	10	
	영락당	10	
	합계	260	

출전: 菊池秋四郎, 『哈爾濱と奉天(哈爾濱の部)』(滿洲視察東道社, 1934), 68~69쪽

기루의 종류를 보면 일본인만 요리점과 기루를 구분하고, 조선인은 기관, 중국인은 유곽으로 표시하였다. 먼저 명칭을 살펴보면, 일본인요리점은 특별한 명칭이 없고 일본인기루는 11개 중 5개만 '루'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일본인기루 명칭이 혼란스럽고, 기루 가운데 요리점처럼 예기만 있는 경우가 11 개 중 4 개나 되는 것은 요리점과 기루의 구분이 모호하였음을 시사한다. 조선인기관은 봉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7개)과 루(4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중국인기루 18개는 '하처(下處, 2개)', '서관(3개)', '반(斑, 4개)', '당(堂, 8개)'의 명칭을 사용했다. 중국인기루의 명칭은 등급을 표시했다. 위 표의 주에서 도원서관까지를 '2 등기루'라고 표시하여, '당'의 명칭을 가진 기루는 '3 등기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봉천에서 중국인 기루 명칭이 서관이었고,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기루가 모여 있는 신경 삼립정(三笠町) 일대에 있는 중국인고등기류(원문은 藝妓屋)의 명칭이 일류는 서관(書館) 또는 하처(下處), 이류는 반(班), 삼류(娼館)는 당(堂)인 것을 보면,<sup>49)</sup> 만주의 중국인 기루의 등급을 정하는 명칭이 동일하였고,<sup>50)</sup> 통계에 등장하

49) 川村湊, 『滿洲鐵道まぼろし旅行』(文藝春秋 1998), 176쪽 1934년 12월말 수도경찰청의 영업자조사를 보면 신경특별시에는 125개의 기관이 있었다. 渡邊嚴, 「國都の營業形態」, 『滿洲統計』, 第12

는 기루는 모두 고등기루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매매업소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요리점은 예기가 평균 17 명 일본기루는 작부가 평균 10 명, 예기가 평균 9.7 명(예기가 있는 곳만), 조선기관은 작부가 평균 10 명, 중국기루는 작부가 평균 14 명이었다 중국기루의 경우는 작부의 수가 10명(9개), 15명(2개), 20명(7개)의 세 종류가 있었다<sup>51)</sup>

마지막으로 지리적 분포를 보면, 일본요리점과 기루는 모두 도리(道裡, 중동철도부속지)에 있고, 조선인기관은 도리(10 개)와 도외(2 개)에 있으며, 중국인 기루는 모두 도외(道外, 중동철도부속지 바깥인 濠家甸)에 있었다<sup>52)</sup> 그리고 일본인기루는 모두 도리일면가(철도가)에, 조선인기관은 대부분이 도리일면가(8 개)에<sup>53)</sup> 그리고 중국인기루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외 16 도가의 집창가에 있었다. 이를 보면 하얼빈에서는 신경과는 달리 민족별로 집창가가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이러한 민족별 집창가의 존재는 1934년 12월 1일 실시한 하얼빈특별시호구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號(1935), 27~29 쪽

- 50) 북경, 상해, 천진 등에서의 기루의 등급 명칭이 모두 달랐다. 천진의 예를 보면 1938년에 기루조합인 낙호공회(樂戶公會)가 성립하여 기원을 계산, 기녀의 수, 경영장소 등을 지표로 하여 5개 등급으로 나누면서, 1~2등기원은 반(班) 또는 서우(書寓), 3등기원은 당(堂) 또는 하처(下處), 4~5등 기원은 굴(窟)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江浦, 「20世紀上半葉天津娼業結構述論」, 『近代史研究』, 第2號(2003), 157~159 쪽
- 51) 그런데 만주국 시기 흑령강성파언현성의 기관을 보면, 관제묘 부근 기루 골목에 30 여호 기관이 있었는데, 최대의 기관은 기녀가 3~4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기녀가 한명만 있었다(魏長海, 「一個妓女眼中的窟子胡同」, 文芳 主編, 앞의 책, 427쪽). 이를 보면 소도시일수록 기관의 규모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
- 52) 도리와 도외 등으로 이루어지는 하얼빈의 지리적 배치에 대해서는 김경일 · 윤휘탁 · 이동진 · 임성모,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역사비평사, 2003), 289~291쪽을 참조하라.
- 53) 당시 도리전지가에는 조선인 카페 은세계, 조선갑종요리 해신관(海新館)이 있었고, 매매가에는 조선갑종요리(미기 봉사) 북일관(北一館, 新喜樂 전신)이 있었다. 『만선일보』 1940년 2월 8일, 1940년 9월 25일, 1940년 6월 21일
- 54) 1920년대에 러시아 기루(娼窟)는 도리 각가에 20여개가 흩어져 있었다 상등기루는 사문가 지단가 등에 있었고, 최하등기루는 석두도가와 매매가에 6~7개가 있었다. 劉靜嚴, 『濱江尘囂錄 · 外國娼窟』, 262쪽, 石方 · 劉爽 · 高凌, 『哈爾濱俄僑史』(黑龍江人民出版社, 2003), 569쪽에서 재인용 1940년대 초반에 길림시에서는 기녀가 있는 술집 원문은 酒館 이 13 개가 있었다 그 중 명칭이 확인되는 6개(명월관, 화월관, 아리랑관, 신경도(新京圖), 대성관, 의회관) 가운데서 3 개가 한 지역(福興里)에 있었다. 吉林市民族事務委員會, 『吉林省朝鮮族志』, 27쪽.

하얼빈의 기관은 부가전(도외)과 부두구(도리)의 2개 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인기관은 부가전에, 일본인기관과 조선인기관은 부두구에 집중되어 있다.<sup>55)</sup> 이는 <표 6>과 일치한다

<표 7> 하얼빈특별시 민족별 기관업 여자종사자의 수(1934년 12월 1일 현재)

	여성 합계		중국인 여성		일본인 여성		조선인 · 기타 여성	
	총인구	기관업 종사자	총인구	기관업 종사자	총인구	기관업 종사자	총인구	기관업 종사자
전시	173716	2533	133099	1913	6936	439	2706	171
부가전	49829	1900	48815	1883	185		744	
부두구	21372	623	8944	6	4910	392	764	166

출전: 哈爾濱特別市公署 『哈爾濱特別市戶口調查結果標 第二卷第二輯 職業』(1935).

주: 중국인은 원문은 본국인이다.<sup>56)</sup>

만주국의 국세조사에서는 기관업여자종사자 대신에 '기녀(妓女)'라는 명칭을 사용했다.<sup>57)</sup> 1935년의 제1차임시국세조사에서의 신경특별시, 하얼빈특별시, 봉천시에서의 기녀의 분포는 <표 8>과 같다.

아직 치외법권이 철폐되기 전이므로 신경특별시와 봉천시에는 만철부속지가 제외되어 있었다. 하얼빈과 봉천의 경우 조선인 기녀는 전체 조선인 여성 가운데 각각 6.1%, 4.9%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민족별로 가장 높았다. 일본인 기녀도 여성 인구 비율보다 기녀 비율이 세 도시에서 모두 높았다.

다음으로 신경, 하얼빈, 봉천 다음의 대도시에 속하고, 만주국의 대도시 가운데

55) 부두구 다음으로는 태평구에 일본인 성매매업종사자가 25명, 조선인 성매매업종사자가 5명이 있다.

56) 본국인에는 한족, 만주족, 귀화인기타를 포함한다. 조선인기타에는 대만인을 포함하지만 무시해도 좋다. 일본인을 내지인과 조선인기타로 구분한 것이다. 이외에 소련인, 무국적인, 기타 외국인이 있다.

57) 이 직업분류는 일본의 현행직업분류(1930년 12월 27일 内閣訓令 제3호)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직업분류식에서는 중분류(24번) 접객업(원문은 待客業)종사자 아래에 소분류(186번) 예기와 창기였는데 이를 만주국 직업분류식에서 기녀로 번역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일본의 공창제에서의 예기와 창기가 만주국에서는 기녀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접객업종사자의 소분류에는 또한 요리점, 음식점, 기관 등의 업주(184번), 여관 하숙집 요리점 음식점 기관 등의 사용인(187번) 등이 있었다. 「滿洲職業分類式」, 『滿洲統計』, 1-10(滿洲統計協會, 1935), 6쪽.

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목단강시에서의 민족별 기관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sup>58)</sup> ① 길안리: 각종 당, 루의 명칭으로 기관이 60여개 기녀 100여명이 있었다. ② 영춘리: 기녀가 200여명이 있었다. ③ 안복리: 기녀가 수십 명 있었다. 위 3개 지역의 기관은 모두 3등 기관으로 기녀는 어떤 문화소양도 없었다. ④ 진루서관(秦樓書館): 비교적 고급의 3등 기관이었다. 기녀는 20여명이 있었는데 모두 예쁘고, 문화가 있고, 가무에 능하였다. 한편, 일본인과 조선인이 경영하는 기관은 칠성가, 창덕가, 원명가 일대에 있었고, 기녀는 모두 200여명이 있었다. 이와 같이 목단강시의 기관도 하얼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기관과 일본인·조선인 기관이 분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lt;표 8&gt; 만주국 대도시에서의 민족별 기녀 분포(1935년 10월 1일 현재)

	합계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여성	기녀	비율	여성	기녀	비율	여성	기녀	비율	여성	기녀	비율
신경	92901	1238	1.3	81168	1011	1.2	9889 (10.6)	323 (26.1)	3.3	1547 (1.7)	4 (0.3)	0.3
하얼빈	166593	1941	1.2	131091	1303	1.0	10540 (6.3)	397 (20.5)	3.8	2714 (1.6)	166 (8.6)	6.1
봉천	163173	2334	1.4	154610	1982	1.3	3862 (2.4)	143 (6.1)	3.7	4304 (2.6)	209 (9.0)	4.9

출전: 國務院總務廳統計處, 『康德七年壬時國勢調查報告·都邑編第一卷 新京特別市』, 1938, 24쪽, 50쪽, 『康德七年壬時國勢調查報告·都邑編第二卷 哈爾濱特別市』, 1938, 86~87쪽, 218~219쪽, 『康德七年壬時國勢調查報告·都邑編第三卷』, 1938, 46쪽, 170~171쪽.

주: 괄호 안은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소도시(원문은 都邑)에서의 민족별 기녀의 분포를 보자. 제2차임시 인구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53개 소도시에서의 민족별 기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58) 이는 1943년에 시어머니에 의해서 800원에 목단강시 영춘리의 한 기관(窟)에 팔려간 한 기녀 출신의 회고이다. 程惠菌, 「婦女淚」, 文芳 主編 앞의 책, 457~458쪽

&lt;표 9&gt; 일부 소도시별 기녀의 민족별 분포(1936년 12월말 현재)

도회명	인구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도회명	인구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도회명	인구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額穆	총수	5997	137	804	依蘭	총수	11795	82	172	西安	총수	15155	516	103
	기녀	85	11	30		기녀	91	1	2		기녀	200	31	16
敦化	총수	12748	626	773	呼蘭	총수	22483	54	42	東豐	총수	8861	28	10
	기녀	81	51	9		기녀					기녀			
樺甸	총수	9340	5	2	阿城	총수	16291	52	349	海龍	총수	8898	15	346
	기녀	38				기녀	49				기녀	25		3
磐石	총수	9577	142	650	雙城	총수	26339	103	86	山城鎮	총수	14785	299	1056
	기녀	39	3	7		기녀	111	1	1		기녀	66	28	3
九台	총수	5093	43	75	海倫	총수	16497	212	113	北鎮	총수	12979	11	19
	기녀	68				기녀	122	24	7		기녀	25		
扶餘	총수	26097	23	28	綏化	총수	15680	226	86	黑山	총수	10394	16	6
	기녀	22	5			기녀	147	31			기녀	21		
農安	총수	11012	61	17	巴彥	총수	14175	22	26	義	총수	10466	68	20
	기녀	47	3			기녀	40				기녀	61	10	
榆樹	총수	5897	10	23	一面坡	총수	9745	366	232	赤峯	총수	16614	463	28
	기녀	30				기녀	25	29			기녀	92	42	6
訥河	총수	4996	90	59	寧安	총수	11336	161	415	平泉	총수	12845	163	14
	기녀	138				기녀			2		기녀	31		5
龍鎮	총수	3820	558	45	牡丹江	총수	7097	3206	3357	王爺廟	총수	3420	235	216
	기녀	105	48	10		기녀	306	194	65		기녀	40	19	4
克山	총수	10728	169	21	綏芬河	총수	1867	626	250	通遼	총수	17656	297	256
	기녀	180	20			기녀	33	54	34		기녀	192	29	10
拜泉	총수	11819	26	19	圖們	총수	1024	1411	8454	開魯	총수	11982	46	27
	기녀	152				기녀	31	75	102		기녀	43		
泰來	총수	6833	53	52	龍井	총수	1650	674	8659	林西	총수	3989	50	22
	기녀	57	5	4		기녀	24	43	60		기녀	19	3	8
大賚	총수	14130	22	3	琿春	총수	3177	482	3035	海拉爾	총수	3139	1617	57
	기녀	62				기녀	33	33	15		기녀	323	110	9
洮安	총수	7648	766	145	新民	총수	15918	78	20	滿洲里	총수	1278	467	38
	기녀	63	55	10		기녀	27	1			기녀	75	61	6
洮南	총수	20441	340	236	法庫	총수	10409	33	6	札蘭屯	총수	2294	158	26
	기녀	186	16	8		기녀	40				기녀	27	17	5
開通	총수	6337	33	12	遼源	총수	13463	352	89	博克圖	총수	1392	320	39
	기녀	47				기녀	60	19	3		기녀	69	31	6
富錦	총수	11861	145	51	西豐	총수	12982	63	99	합계	총수	552449	16221	30788
	기녀	319	23			기녀	56				기녀	4223	1126	450

출전: 國務院總務廳統計處, 『第2次臨時人口調查報告書 總括篇(前半·後半)』, 『外地國勢調查報告, 第二集 滿洲國務院 國勢調查報告 第五冊』(발행년도 불명).

주: 인구 수는 모두 여성인구이다

위 표에 나타난 일부 소도시에서의 여성인구 대비 기녀의 비율을 보면 일본인 (6.94%), 조선인(1.46%), 중국인(0.76%)의 순서로 일본인 기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났다. 그런데 이 일부 소도시의 인구 대비 기녀의 비율을 하얼빈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일본인은 소도시가 더 높게 나타났고, 조선인과 중국인은 대도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조선인은 신경을 제외). 이는 일본인의 경우에 워낙 대도시 집중율이 높았으며, 소도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상층이 더욱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녀의 분포를 최대값으로 비교해 보자. 중국인기녀는 해랍이, 부금, 목단강, 서안, 도남, 극산, 배천, 수화, 놀하의 순서로 많았고, 일본인기녀는 목단강, 해랍이, 도문, 만주리, 도안, 수분하, 용진, 용정, 적봉의 순서로 많았고, 조선인기녀는 도문, 용정, 목단강, 수분하, 액목, 서안, 혼춘, 용진·도안의 순서로 많았다. 따라서 각 민족별 기녀의 수가 많은 9개 시가지 가운데서 조선인기녀와 중국인기녀는 1개(목단강) 시가지가 일치할 뿐이고, 조선인과 일본인기녀는 5개 시가지가 일치한다. 그리고 일본인기녀와 중국인기녀는 2개 시가지가 일치한다. 따라서 기녀의 수의 분포를 보면 조선인기녀는 중국인기녀보다는 일본인기녀와 더 많이 집적되었다. 소도시 가운데서 용진, 적봉, 평천, 임서, 해랍이, 만주리,<sup>59)</sup> 찰란둔, 박극도 등은 조선인 여성 중 기녀의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이었다.

## V. 만주국 성매매종사자의 민족간·민족내 위계

성매매제도에서 성매매종사자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민족간 위계와 민족내 위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민족간 위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자료 밖에는 확인할 수 없다. 먼저 조선

59) 1927년 7월 구미여행길에 오른 나혜석이 시베리아철도(본선)와 연결되는 이곳에 도착하였다가 조선인 ‘밀매음녀’를 목격하였다. 이 사실을 그녀는 5년 후에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썼다 “밤8시에 러시아와 중국 국경인 만주리에 도착하였다. 한 시간 동안 시가를 구경하였다 국경인만치 군영이만코 조고마한 시가지나마 조선인밀매음녀까지 구비해 있다(원문대로).” 나혜석 「쏘비엣 露西亞行: 歐米遊記의 其一, 『三千里』, 12 월호(1932), 660~63 쪽 1927년 당시의 만주리의 조선인 여성 인구와 성매매종사자의 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40년 당시라고 해도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주리에는 조선인 여성 39명 전체 여성인구는 1,800명) 가운데 성매매종사자가 6명이나 되었으므로

인성매매업 가운데 가장 발달하였던 요리점업에 대해서 살펴보자. 1930년대 초반 신경 요리점업에서의 민족별 영업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10> 신경 요리점업 영업상황

연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합계	
	만철부속지	특별시	만철부속지	특별시	만철부속지	부속지	
1931	수	6		19		33	58
	매출액	22,791		450,504		130,502	603,799
	평균매출액	3,799		23,711		3,955	10,410
1932	수	13		29		33	75
	매출액	68,599		1,500,573		591,937	1,961,109
	평균매출액	5,277		51,743		17,937	26,148
1933	매출액	20	3	36	33	33	89
	매출액	136,336	6,000	1,904,981	554,000	552,830	2,594,147
	평균매출액	6,817	2,000	52,916	16,788	16,752	29,148
1934	수	20	3	44	33	36	100
	매출액	114,000	11,000	733,000	711,000	574,000	1,420,000
	평균매출액	5,700	3,666	16,659	21,545	15,944	14,200

출전 : 新京地方事務所勤業係, 『新京發展事情概況(1934)』; 新京地方事務所勤業係 『新京の現況(1935)』, 8쪽에서 작성.

인구대비 요리점의 수를 보면 조선인요리점이 가장 많았지만, 평균 매출액은 가장 낮았다. 곧 조선인요리점은 수가 많은 대신에 규모가 영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인 요리점은 사실은 '기관'이었다. 요리점과 비교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기관이었고, 따라서 중국인요리점의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반면에 조선인요리점의 경우에는 명칭은 요리점이지만 창기를 고용한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공식적인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구대비 요리점의 비율을 설명하기 어렵다.

요리점의 매출액에는 예기화대, 작부화대, 술값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0년 7월 중 봉천시대화경찰서관내(구 만철부속지)의 요리점 매출액(원문은 유흥액) 내역을 보면 전체 매출액은 72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예기화대가 29만4천원, 작부증이 13

만5천원, 술값이 29만 6천원이었다고 한다<sup>60)</sup> 1941년 말의 대화경찰서관내의 예기(544명)와 작부(810명)의 수로 추정하면<sup>61)</sup> 예기의 평균 수입은 540원, 작부의 평균 수입은 167원이었다. 따라서 일본인요리점의 매출액이 높았던 데에는 일본인 예기의 화대 수입이 큰 몫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기, 작부뿐 아니라 여급을 포함하는 영업상황을 살펴보자 1940년 6월말 현재 목단강시에서의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의 성매매업 영업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11> 목단강시 성매매업의 민족별 영업상황(1940년 6월말)

	예기			작부			여급			합계	
	수	수입	평균 수입	수	수입	평균 수입		카페수 입(주대)	평균 수입	수	수입
중국인				468	31784	68					
일본인	266	89656	337	161	43055	267	25	101730		443	410156
조선인							568	28504			
합계										1475	470444

출전: 『만선일보』 1940년 7월 28일자 5면

주: 중국인 작부는 원문은 예작부(예기와 작부를 합한)이다.

위 통계에서 일본인 수입 합계에는 요리점의 술값 87,857원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주대 수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 합계를 계산할 수 없다. 일본인의 예기와 작부의 화대를 비교하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일본인 작부와 중국인 작부(실제로는 기녀)는 화대에서 큰 차이가 났다. 이 통계는 목단강시가 ‘북변진홍계획’에 의한 신생 도시로서 만주국의 대도시 가운데 일본인과 조선인의 비율이 모두 가장 높은 도시였으므로 특수한 경우라고 해도 성매매종사자의 민족내(직종간) 차별보다 민족간(직종내) 차별이 더 컸음을 시사한다. 위 통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조선인 작부의 수입을 확인할 수 없다.

위 통계에서 여급의 수입(팁)은 확인할 수 없다. 카페의 수입은 술값을 나타낸

60) 『만선일보』 1940년 9월 1일자 4면

61) 奉天市公署·奉天市商工公會, 앞의 책, 20쪽

다. 이를 여급의 수로 나누면 일본인 여급의 경우는 한달에 평균 4,069 원의 매출을 올렸던 반면에, 조선인 여급의 경우는 한달에 평균 고작 50원의 매출을 올렸다. 위 기사에서 원래 조선인 여급은 6,143명으로 되어 있었다. 합계와 일본인, 중국인 성매매종사자의 수를 빼서 조선인 여급의 수를 구한 것인데, 조선인 여급의 수와 일본인 여급의 수를 비교해 보면 오기임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목단강시를 포함하는 목단강성의 일본인 여급이 759명이고, 조선인 여급이 169 명인 것과 비교해도 알 수 있다. 혹 작부와 여급을 합한 수일지도 모른다.<sup>62)</sup>

민족별 성매매종사자의 수입을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있다. 인구가 12만 명으로 목단강시보다 약간 적고, 목단강시의 인근 도시이며 또한 신생 도시였던 가목사시(삼강성)의 작부(기녀)의 민족별 화대 수입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12> 가목사시의 민족별 작부의 화대 수입 비교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작부 수	158	115	326
화대 수입	60,000 원	30,000 원	100,000
평균 화대 수입	380	261	307

출전: 『만선일보』 1940년 9월 21일 4면

위 통계를 보면 한 달간의 민족별 작부(기녀)의 평균 화대 수입은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의 순서였다. 그런데 그 차이가 앞서 본 봉천시, 목단강시와는 달리 그 차이 크지 않다. 왜 그럴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앞서 신경만철부속지에서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 통계에서 잡힌 중국인 작부(실제로는 기녀)가 고등기녀에 국한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인구대비 작부의 수에서 중국인의 경우에 매우 낮고, 일본인과 조선인, 특히 조선인의 경우에 매우 높은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sup>63)</sup> 그리고 조선인 작부 내에서

62) 목단강시는 “조선인이 4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있는 것은 사람과 술집(요리점과 카페)뿐”이라고 할 정도로 조선인 성매매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같은 면의 다른 기사, 그리고 『만선일보』 1940년 9월 4일자 5면

63) 1943년 말 가목사시의 민족별 인구분포를 보면 중국인(만한족, 몽족, 회족, 기타를 포함)이 82,924명, 일본인이 16,222명, 조선인이 5,626명이었다 警務總局, 「主要都市·市街地戶口統計表」(출판년도 불명, 65 쪽 1940년 말 가목사시가 있는 삼강성에서의 민족별 성매매종사자의 비율을

도 수입에서의 차별이 나타났다. 조선인 작부의 평균 수입이 가장 낮았지만 일등을 차지한 사람은 조선인측 공략관의 에미꼬(笑子로 월 평균 화대 수입이 944원에 달하였다.

민족별 성매매종사자의 지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성병 현황이 있다.<sup>64)</sup> 1939년 하얼빈시에서의 성매매업종사자의 성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13> 1939년 하얼빈시 성매매업종사자(예기·작부) 성병 현황

	검진횟수	수진인원	이병율
중국인	2	1363	14.8
조선인	4	605	2.48
러시아인	4	225	5.34
합계	10	2193	10.39

출전: 哈爾濱市公署, 『哈爾濱市統計月報』 1(1939), 11쪽

주: 면진자는 월경이 223명, 사고자가 48명이었다.

조선인과 러시아인이 중국인보다 더 검진을 많이 받았다. 수진인원을 횟수로 나누면 중국인은 681.5명, 조선인은 151.3명, 러시아인은 56.3명이었다. 중국인은 성병 검진횟수가 가장 적고, 이병율이 가장 높았다.<sup>65)</sup> 이병율을 보면 조선인이 가장 낮고, 다음이 러시아인이었다. 그런데 1937년 하얼빈 러시아기녀(원문은 藝娼妓)의 성병 검진 성적(<표 14>)과 비교하면 1939년에 하얼빈 러시아기녀의 성병 이병율이 약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병율이 이를 보면 1937년에 비해서 1939년에 하얼빈의 러시아기녀의 이병율이 약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sup>66)</sup>

보면 중국인 작부가 971명, 일본인 예기(253명)와 작부(115명)가 368명, 조선인 예기(9명)와 작부(234명)가 243명이었다(<표 5>).

64) 만철부속지에서는 예기와 작부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해 오고 있었지만 만주국에서 전국적으로 성병검진을 실시한 것은 1938년 9월 민생부령으로 <건강진단규제>를 공포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예기와 작부 등 매음상습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성병감염자는 공립의 부인 병원 및 성병진료소에 강제로 수용해서 치료했다. 滿洲國史編纂刊行會, 『滿洲國史·各論』(謙光社, 1973), 1198쪽

65) <표 8>에서의 중국인 기녀 1,303명, 조선인 기녀 166명이라는 통계를 보면, 중국인 기녀의 검진 횟수가 1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6) 만주국 통계에 의하면 1936년 하얼빈 도리에서 세금을 납부한 러시아기녀가 72명(평균세금액 288원)이었다. 『哈爾濱特別市市勢統計月報』 第1卷 第10號(1936), 위의 책, 569쪽에서 재인용.

&lt;표 14&gt; 1937년 하얼빈 러시아 기녀의 성병 검진 성적

월별	검사회수	수진자 수	성병 감염자 수					
			매독	임질	연성하감	기타	계	이병율
1월	4	230	7	11	1	-	19	8.26
2월	4	238	3	20	3	-	23	9.66
3월	4	193	-	19	-	-	19	9.84

출전: 『哈爾濱特別市市勢統計月報』第1卷 第12號(1940); 石方·劉爽·高凌, 『哈爾濱俄僑史』(黑龍江人民出版社, 2003), 569쪽에서 재인용.

일부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의 수입을 1940년 3월에 『만선일보』 학예부기자의 만주의 5개 도시(하얼빈, 신경, 목단강, 용정, 봉천)의 조선인 직업여성에 대한 탐방기에서 살펴보면, 같은 직종인 경우에도 지역(또는 개인)에 따라서 수입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sup>67)</sup> 댄서가 여급 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지만 하얼빈의 댄서(300원)와 신경의 댄서(120~130원) 간에는 수입의 차가 컸으며, 여급 가운데서도 봉천(300원)과 하얼빈(200~300원)의 여급과 신경·용정의 여급(100원) 간에는 수입의 차가 컸다. 댄서의 경우는 티켓(춤표)를 받았으므로 티켓 단가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었으며 여급은 팁을 수입으로 하였으므로(화장품 값으로 월급 15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인기에 따라서 수입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 탐방기에 나오는 성매매종사자들은 다른 직업여성과 비교하면 고수입군이었다. 다른 직업여성의 수입을 보면 신경유치원보모는 20원, 간호사 2명은 모두 50~60원, 목단강성공서 타이피스트는 60원, 신경협화회사무원은 55원 월급

상해에서도 러시아기녀는 구미(백인) 기녀 가운데서 가장 수가 많고 지위가 낮았다. 1930년대 한 관찰자에 의하면 상해의 러시아기녀가 8,000명에 달하고, 기타 국적의 백인기녀가 2,000명에 달했다. 러시아기녀는 대개 하얼빈에서 왔다. Champly, Henry, *The Road to Shanghai: White Slave Traffic in Asia*, Warre B. Wells, translated, London: John Long Ltd., 1934, pp. 188~189; 賀蘭, 앞의 책, 51쪽.

67) 성매매종사자는 탐방기에 나오는 직업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는 초등학교교사, 유치원보모, 간호사, 사무원(타이피스트), 전화교환수, 미용사 등이 있었다.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 직업여성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여급, 여점원, 여사무원이었다. 이는 직업여성 가운데 작부를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종사자를 직업여성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을 때도 그 성매매종사자는 기생과 여급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직업부인좌담회」, 『신여성』 1933-4, 51~54쪽, 姜貞姬, 「여급도 직업부인인가」, 『신여성』 1932-10, 373쪽, 張英順, 「내가 여급으로 되기까지: 이 직업을 멸시마시오」, 『신여성』 1933-3, 80~85쪽 등을 참조하라.

45원, 수당 10원)이었다.<sup>68)</sup> 성매매종사자가 성매매업에 유입된 이유도 이러한 높은 수입 때문이었다. 그런데 위 탐방기에 나오는 성매매종사자들의 지출을 보면, 그녀들을 성매매업으로 이끌었던 높은 수입이라는 유혹은 기실 자신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가족을 위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69)</sup>

## VI. 결론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는 일본인 성매매제도에 따라서 ‘예기(기생, 작부, 여급, 댄서’ 등으로도 분류될 수 있었으며 중국인 성매매제도에 따라서 ‘기녀’로도 분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인과 중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분류가 모두 가능하였던 것은 성매매종사자(‘기녀’라고 불릴 수 있는)라는 섹슈얼리티의 동일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시 민족(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간에, 지역(조선인인 경우에는 조선내지와 만주, 일본인의 경우에는 일본내지와 만주) 간에, 그리고 섹슈얼리티(일본인과 조선인인 경우에 기생, 작부, 여급, 댄서, 그리고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기, 그리고 중국인인 경우에 각 등급의 기녀) 간에 차별이 나타났다. 이 차별에 의해서,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곧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는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의 교차로 위에 서 있었다.

이 글에서는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매매종사자가 되었으며, 또 이들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였다.<sup>70)</sup>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강요된 삶을

68) 『만선일보』 1940년 3월 9일, 13일, 14일, 18일, 각 4면

69) 여급으로 200~300원을 받은 경우는 부친에게 100원을 부쳤으며 댄서로 120~130원을 번 경우는 편모 생활비와 동생 학비를 부쳤으며, 여급으로 100원을 받은 경우는 여동생 학비를 포함하여 집에 50원을 부쳤으며, 여급으로 300원을 받은 경우는 부모와 4명의 동생의 학비를 부쳤으며, 월 수입액을 알 수 없는 목단강시의 한 여급은 오빠 학비를 부쳤다.

70) 일반적으로 성매매종사자는 ‘길’ 위의 존재이다. 그녀들은 줄곧 ‘여행’을 다닌다.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인 경우는 조선내지에서 온 경우가 많았으며, 일본인 성매매종사자도 일본내지에서 온 경우가 많았다. 조선에서 만주로 온 조선인성매매종사자도 여정이 계속되었다.

살아야 했다.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외부의 힘으로는 성매매제도를 만든 국가가 있었고, 이 국가와 공모관계에 있는 '관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관념을 지적하고자 한다(이러한 관념이 현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이 관념은 다음과 같은 담론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이광수의 담론이다 당시 동아일보편집국장이었던 이광수는 1933년 대련박람회를 기회로 개최된 일본전국신문협회대회에 참가한 후 만주국의 도시들을 순방하고 귀국한 후에 한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71)</sup>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업은 대부분이 인육장사와 밀수입자이고.. 참 나는 이번 걸음에 조선인의 인육시장에 참으로 놀났습니다. 봉천, 길림, 하얼빈, 신경 등 곳곳에 조선인요리업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요리업을 개시만 한다면 성공한다니까. 그것은 중국여자는 더럽고 그래서 모두 조선여자를 환영한다는데 그런 까닭에 어떤 여자는 하루 서른다섯명의 남자를 접하였다고 합데다. 그러니 돈을 남지 않겠습니까. 봉천서는 인육장사를 하여 이십만원 돈을 모은 부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수삼만원, 십여만원씩 모은 성공자들이 있다고 해요 (원문대로).” 그리고 또 다른 참관자인 김형원(조선일보편집국차장)도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회지에는 창기업이 전성하더군요. 봉천에 조선 사람이 1만여명 산다는데 조선인요리집이 사오십집 있어요. 신경, 길림 등지에도 모두 10~20호씩 있어요.”

이광수가 성매매업을 '인육장사'로 표현한 것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었다. 잡지에서 이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성매매업에 대한 멸시, 낙타가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멸시가 담겨 있다. 이광수와 김형원의 발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매매업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담론에서는 조선인 성매매종사자가 하루에 35명의 남자를 받은 것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없다 오직 강조되는 것은 성매매업자의 '성공'이었다.

자본을 가지고 만주에 오지 못한 조선인으로서는 비교적 자본이 들지 않는 요리점업이나 아편밀매업에 치중하였고,<sup>72)</sup> 이로 인해서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평판이 나빠졌던 것인데, 나중에는 요리점업은 조선인의 '성공 사례'로서 칭송되기까지 하

71) 「在滿同胞問題座談會」, 『三千里』, 9월호(1933), 49쪽

72) “조선인은 대기업을 일으킬 역량이 없으니 결국 만주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색주가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다.” 『만선일보』 1940년 9월 29일자 3면

였다. 다음의 『만선일보』 기사가 그 예이다.<sup>73)</sup> “미곡 및 곡물무역상 금융업자, 기타 일반 상업, 음식점 여관 등이 조선 농민과 월급쟁이를 목표로 하고 경영되어 왔다. 고무·인쇄 등 약간의 업종을 제하고 만주 조선인의 상공업은 대체로 조선 농민과 하급 월급쟁이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업종으로는 비록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그 영업형태에 있어서 또 영업 성격에 주목할 만한 것은 각지의 요리업이다. 만주 주요도시에 조선인으로서 경제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의 영업주들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영업성격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은 그들이 발견한 만주 현지에 적응한 영업 형태에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래 빈약한 조선인의 경제력만으로 의거하지 않고 영업 형태를 초민족적으로 형성해 나감으로써 영업이 목표하는 세계를 확대하여 이로써 그의 발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만주 주요도시의 조선인 요리업은 그 영업 형태에 있어서 만주 조선인상공업자에게 큰 시사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원문대로).”

요리업에서 영업 형태를 ‘초민족적으로’ 형성해 나갔다는 것은 조선인 성매매종사자가 하층 일본인을 고객으로 삼게 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인 성매매업이 성공을 거두게 된 진정한 이유였다. 이를 조선인 상공업에서 ‘조선인 의존주의’를 탈피하는 하나의 성공 사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에게 일본인을 고객으로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들은 일본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일본인을 상대하는 것은 주로 ‘창기’로서 이었고, 조선인 요리점이 성공을 거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성매매업이 조선의 성공한 상공업으로 칭송되는 반면에 성매매종사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sup>74)</sup> 당시의 신문에서 성매매종사자는 심인(尋人) 광고<sup>75)</sup> 또는 업소홍보용 광고로 등장하였다. 이 경우에 그녀들의 얼굴이 신문에 실렸다.<sup>76)</sup> 이러

73) 『만선일보』 1939년 12월 9일자, 1면

74) 한 연구자가 앞서 살펴 본 나혜석이 만주리에서 본 조선인 밀매음녀에 대한 ‘침묵’을 지적하였듯 이, 이러한 침묵은 당대에도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송연우 「조선·신여상’의 내셔 널리즘과 젠더」, 문우표 외, 『신여성』(청년사, 2003), 105쪽

75) 도망간 직부를 찾는 심인광고의 예로는 『만선일보』 1940년 7월 29일자, 4면 1940년 9월 4일자, 2면 등이 있다.

76) 한 예로는 번수선수양역의 애국루를 홍보하면서 죽자, 약자, 마사오, 명화, 군자, 아사꼬라는 6명

한 성매매종사자의 '타자화'야말로, 이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로 연행하는데 공모한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공창제나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은 국가의 범죄이지만 또한 그 국가와 공모한 시민의 범죄이기도 하다. 공창제에서 나타나는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인신구속, 그리고 포주와 성매매종사자, 고객과 성매매종사자 간의 불평등성을 비판하지 않은 것, 성매매종사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오로지 업주의 관점에서 '돈벌이'의 성공을 칭송하는 것,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식민지성(수탈성)'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결국 성매매종사자들을 일본군위안부로까지 내몬 데 공모한 것이 아니었을까?

설사 성매매종사자가 일본군위안부로 내몰렸다고 해서 그 범죄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강제연행이 아니거나 인신구금이 아니거나 '폭력'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매매종사자들은 여전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sup>77)</sup> 이들이 침묵을 깨고 스스로 발언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사회에 참가할 때, 비로소 '성착취' 제도로서의 성매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在滿同胞問題座談會」, 『三千里』 9월호, 1933.
- 김경일 · 윤휘탁 · 이동진 · 임성모,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김영신, 「일제하 한인의 대만이주」, 『국사관논총』 제99호, 2002.
- 나혜석, 「쏘비엣露西亞行: 歐米遊記의 其一」, 『三千里』 12월호, 1932.
- 滿鮮日報社, 《滿鮮日報》.
- 朴潤元,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開闢』 제13호, 1921.
- 배리 캐슬린 저, 정금나 · 감은적 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서울: 삼인, 2002.
-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여급연구: 여급잡지『女聲』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9권 제3호, 2003.
- 孫禎陸, 「日帝下의 賣春業: 公娼과 私娼」, 『都市行政研究』 제3호, 1988.

의 사진을 실었다. 이들은 조선식과 일본식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장도 한복, 일본옷, 양장으로 섞여 있었고, 이에 따라 두발도 달랐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1일자, 8면

77) 중국에서는 성매매업 자체에 대한 중언(성매매종사자 자신이나 직접 보거나 직접 본 사람에게 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이 나오고 있다(文芳 主編, 앞의 책). 그러나 이들 중언은 성매매금지 주의라는 '신사회'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사회'에 대한 고발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 준비과정」. 『한국사론』 제40호, 1998.

송연옥, 「조선·신여성의 내셔널리즘과 젠더」. 문옥표 외, 『신여성』. 서울: 청년사, 2003.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 고찰 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 2000.

여성부, 「2002년 국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서울: 여성부, 2002.

오영섭, 「초대대통령취임식 갖가운 비율빈」. 『三千里』 9월호, 1935.

윤휘탁, 「만주국의 '이등국(二等國)'」. 『역사학보』 제69집 2001.

Garon, Sheldon, "The World's Old Debate? Prostitution and the State in Imperial Japan, 1900~1945." *American Historical Review*, 98-3(June). 1993.

Hershatter, Gail. *Dangerous Pleasure: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Century Shanghai*. Berl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江沛, 「20世紀上半葉天津娼業結構述論」. 『近代史研究』 第2號, 2003.

姜紅喜, 「往事不堪回首」. 文芳 主編, 『娼禍』. 中國文史出版社, 2004.

警務總局, 「主要都市·市街地戶口統計表(출판년도 불명)」.

國務院總務廳統計處, 『第2次臨時人口調查報告書 總括篇(前半·後半)』. 『外地國勢調查報告 第二集 滿洲國國務院 國勢調查報告 第五冊(발행년도 불명)』.

國務院總務廳統計處, 『康德七年臨時國勢調查報告·都邑編第三卷』. 1938.

國務院總務廳統計處, 『康德七年臨時國勢調查報告·都邑編第二卷 哈爾濱特別市』. 1938.

國務院總務廳統計處, 『康德七年臨時國勢調查報告·都邑編第一卷 新京特別市』. 1938.

吉林市民族事務委員會, 『吉林市朝鮮族志』.

滿洲國治安部警務司, 『第四回警察統計年報』. 1942.

文芳 主編, 『娼禍』. 中國文史出版社, 2004.

謝吾義, 「民初上海娼妓一瞥」. 文芳 主編, 『娼禍』. 中國文史出版社, 2004.

石方·劉爽·高凌, 『哈爾濱俄僑史』. 黑龍江人民出版社, 2003.

阿南, 「舊北京的八大胡同」. 文芳 主編, 『娼禍』. 中國文史出版社, 2004.

又吉盛清, 『日本殖民地下的臺灣與沖繩』. 臺北: 前衛出版社, 1997.

魏長海, 「一個妓女眼中的窟子胡同」. 文芳 主編, 『娼禍』. 中國文史出版社, 2004.

程惠茵, 「婦女淚」. 文芳 主編, 『娼禍』. 中國文史出版社, 2004.

平襟亞, 「舊上海老大的娼妓隊伍」. 文芳 主編, 『娼禍』. 中國文史出版社, 2004.

賀蕭, 『危險的愉悦 20世紀上海的娼妓問題與現代性』 江蘇人民出版社 2003.

哈爾濱市地方誌編纂委員會, 『哈爾濱市誌·人口』 1999.

哈爾濱特別市公署, 『哈爾濱特別市戶口調查結果標 第二卷第二輯(職業)』 1935.

「満洲職業分類式」, 『満洲統計』 第1卷 第10號 滿洲統計協會 1935.

菊池秋四郎, 『哈爾賓と奉天(奉天の部)』 滿洲視察東道社 1934.

菊池秋四郎, 『哈爾賓と奉天(哈爾賓の部)』 滿洲視察東道社, 1934.

菊池秋四郎·中島一郎, 『奉天二十年史』 奉天二十年史刊行會 1926.

宮川善造, 『人口統計に見たる満洲國の縁族複合状態』 滿洲事情案内所 1941.

渡邊巖, 『國都の營業形態』, 『満洲統計』 第12號 滿洲統計協會 1935.

滿洲國史編纂刊行會, 『満洲國史·各論』 謙光社, 1973.

滿洲事情案内所, 『觀於數字新京』 『満洲統計』 滿洲統計協會 1936.

滿洲事情案内所, 『國都·新京』 1933.

福昌公司調査部 編, 『滿蒙通覽(中編)』 東京: 大阪至號書店, 1918.

奉天商工公會, 『奉天產業經濟事情』 1942.

奉天商業會議所, 『奉天經濟二十年誌』 1927.

奉天市公署·奉天市商工公會, 『奉天市統計年報(1941~1942年版)』 1943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 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1994.

新京地方事務所勤業係, 『新京發展事情概況』 1934.

新京地方事務所勤業係, 『新京の現況』 1935.

野田涼 編, 『奉天居留民會三十年史』 奉天居留民會 1936.

尹明淑, 「日中戰爭期における朝鮮人軍慰安婦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1994.

竹村民郎, 「公娼制度の定着と婦人救済運動」, 『環』 10, 2002.

倉橋正直, 「満洲の酌婦は内地の娼妓」, 『愛知縣立大學文學部論集(一般教育編)』 第38號 1999.

戸川猪佐武, 『素顔の昭和 戰前編』 角川文庫 祿 481, 1981.

● 투고일 : 2004. 12. 10.

● 심사완료일 : 2005. 8. 26.

● 주제어(keyword) : 성매매(prostitution), 공창제(licensed prostitution), 민족(nation),  
지역(region), 섹슈얼리티(sexuality)